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일본 오사카대
파견기간 : 2010.08.01~2010.08.21
학 부(과) : 디자인공학과
성 명 : 유가연
학 년 : 2

8월 1일,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간사이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오사카대학측과 서로 잘못 알고 있어서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JICA에 도착해보니 아마시타상과 콘도교수님과 튜터분들이 계셨다. 오사카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정은언니외에도 오사카대의 한국어학과와 다른 튜터분들도 다들 한국말은 잘 하셨다. 2주동안 같이 공부하는 태국애들도 있었는데, 처음엔 다들 개성이 넘쳐서 다가가기 힘들었다.

다음날, JICA에서 아침을 먹고 야마시타상과 같이 오사카대학까지 컨벤션홀까지 걸어갔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20 분넘게 걸으니깐 너무 힘들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도 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첫 수업을 했다. 첫 수업이라 쉬운 내용이었다.

JICA는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했다, 다들 영어를 잘하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방도 깨끗하고 넓었고,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 수 있고 TV도 있어서 일본 방송을 볼 수도 있었다. 역까지 데려다 주는 셔틀버스도 있었고 자전거도 빌릴 수 있어서 밖으로 나가긴 편하긴 했지만, 셔틀도 밤늦게까지 없고 자전거도 7시면 반납해야해서 밤에 늦게 돌아오면 JICA에 멀리있는 모노레일역부터 걸어와야했는데, 사람도 없고 멀리 있어서 힘들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동안 저녁이나 밤에 하나비같은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버스시간 때문에 대부분 포기해야 했었다. 10시까지 컴퓨터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도 있었다. 인터넷속도도 빨라서 편했다. 비디오나 책도 빌릴 수 있고, 가라오케나 체육관같은 시설도 있었고 주방을 빌려서 요리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있어서 편했다. JICA에서 아침과 저녁을 먹었는데 아침은 자유롭게 가져가서 먹는 것이었는데 맛은 있었지만 거의 매일 똑같은 메뉴라서 얼마 안가서 지겨워졌다. 저녁은 정해진걸 받아서 먹는거였는데, 가끔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나올 때도 있었다.

수업은 오카다선생님과 이토선생님이 일본어를 가르쳐주시고 탕선생님이 일본문화를 가르쳐주셨다. 오카다선생님과 이토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쉬운 일본어랑 영어로 쉽게 설명해주셨다. 수업방식도 서로 질문하는 것이 많아서 지루하지 않았다. 탕선생님의 수업은 태국애들과 같이 들었는데 조금 어려운 일본어로 수업하셔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다. 일본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긴

했지만 조금 지루했다. 우리학교는 3주과정이라 우후에 수업이 있을 때가 그리 많지 않아서 수업끝난 후에 다른데에 갈 수 있어서 좋았다.

첫 번째주에는 프로그램 일정으로 수요일에 오사카도매시장에 가고 금요일에 교토에갔다. 오사카의 도매시장은 무척 크고 과일, 야채, 생선들이 많았다. 시장에 대한 설명도 듣고 경매하는 모습도 봤지만, 한국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크기만 할뿐 별다른 것 없는 도매시장이라 실망했었다. 그래도 점심 먹고 학교로 돌아가지않고 우메다를 돌아다니다 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때쯤부터 태국애들과 친해지 시작했다. 먼저 말도 많이 걸어주고 생각한 것과 달리 착하고 재미있는 애들이라서 금세 친해졌다. 우리나라의 가수를 좋아하고 우리말도 조금씩 알고 있어서 신기했다.



교토에서는 아라시야마, 금각사와 청수사에 갔다가 기온에서 전통공연을 보고 다도체험을 했다. 교토는 분지라서 더 덥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튜터분들과 친해져서 같이 다니면서 우리끼리 다녔으면 못해봤을 체험들도 할 수 있었다. 기온에서 다도체험도 재미있었지만 내가 만든 차는 너무 써서 다 마시기 힘들었다. 돌아올때도 태국애들은 굉장히 활기차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댔다. 함께 우리나라의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돌아왔다.

첫째주 토요일엔 세희와 지선이랑 요도가와 하나비를 보러갔었다.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끝날 때와 역에서 전철 탈 때 빼고는 괜찮았다. 강변에 앉아서 50분 동안 너무 예쁜 불꽃들을 볼 수 있었다. 유카타를 입고 온 사람들도 많아서 다양한 유카타를 구경할 수 있었다. 일요일엔 세희와 난바쪽을 돌아다녔다. 그때쯤 일본은 대부분의 가게가 세일을 해서 잘 찾으면 한국보다도 싼 것들을 살 수 있어서 좋았다.

두 번째 주부터는 수업내용에 문범의 비중이 높아지고 난이도도 점점 어려워졌다. 오사카의 생활도 좀 익숙해져서 이제 길도 별로 안 헤메고, 지하철과 전철도 쉽게 탈 수 있었다.

월요일에 일본의 전통희극인 라쿠고를 볼 수 있었다. 강의실에서 공연을 봤는데, 영어로 해주시긴 했지만 발음이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수요일엔 오사카 시내를 돌아다녔다. 전통 천짜기를 체험하고 전통적인 공장과 비즈니스센터를 가는 일정이었는데, 일본에 오기전에 알려줬던 일정과 다르고 재미없었다. 철을



주조하는 공장은 너무 더워서 열마 있지도 못하고 나오고 비즈니스센터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같은걸 들었는데, 설명이 너무 길고 지루했다. 그래도 점심에 했던 타코야키 만들기는 재밌었다. 목요일엔 오후에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교토에 다시 갔다. 교토의 예쁜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녔다. 게이샤들도 볼 수 있었다. 금요일엔 태국애들의 파

이널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저녁때 파티가 있었다. 친해졌는데 벌써 헤어질때가 되어서 아쉬웠다.

토요일엔 세희와 오사카주유패스를 써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오사카주유패스는 지하철과 여러곳의 입장이 무료라서 좋긴한데 여름이라 몇군데 돌아다니면 금세 지쳐서 힘들었다. 주택박물관에서 유카타도 입어보고 오사카성에도 가보고 산타마리아호도 타고 관람차도타고 공중정원에서 오사카의 야경도 보았다. 밤엔 언니들과 만나서 다시 교토의 튜터 중 한명인 종보네 집에 놀러갔다. 종보는 제일교포3세인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고 나와 세희랑 나이도 같았다.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다. 다음날에 일어나서 후시미 이나리 신사에 갔다. 거기엔 신사 앞에 세워져 있는 도리가 산속에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다. 다시 교토 시내로 와서 일본의 재래시장을 구경



했다. 시장인데도 그리 싸지가 않아서 과자 몇 개만 사고 돌아왔다.

셋째주부터는 오사카의 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졌었다. 금요일에 파이널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조금씩 하고 돌아가면 줄 선물들도 샀었다. 목요일엔 마지막으로 나라에 갔다왔다. 하루에 4군데를 돌아도는 빡빡한 일정이여서 많이 걸어야 되서 좀 힘들었다. 사슴에게 시카센베도 주고 교토와 달리 관광객이 없는 조용한 절도 가 볼 수 있었다. 금요일에 파이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마지막 파티를 했었다. 다들 일본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들었다, 3주 동안 정말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었다.

3주동안 여러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체험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일본은 특히 외국인에게 너무 친절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일본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 조금 문법에 맞게 말할수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서 많이 참가할수 있으면 좋겠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일본 오사카대
 파견기간 : 2010.8.1~2010.8.21
 학 부(과) : 디자인공학과
 성 명 : 오세희
 학 년 : 2



0801 일본 도착한 날 JICA에서 환영회

처음 일본 단기어학연수를 신청하게 된 동기는 디자인은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반드시 반영하기에, 직접 일본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느끼며 그것들이 베어 있는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일본의 디자인들을 몸소 체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디자인공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어학연수가 확정된 뒤 기대감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 기대감에 걸맞게 오사카대학교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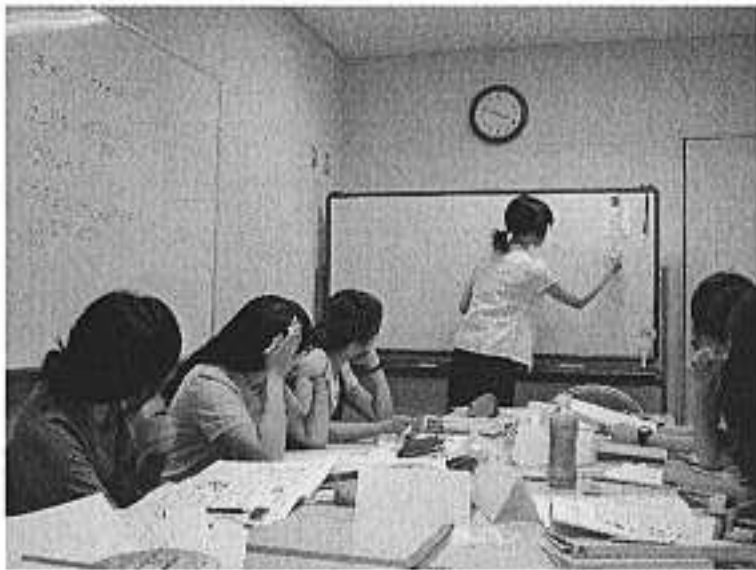
어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 뿐 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갔던 문화체험 여행과, 주말에 주어지는 자유 시간에 직접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일본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 있는 디자인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기 어학연수가 제게는 어학공부와 전공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외우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레벨이 저에게는



0802 오사카대학교 학생증

알맞았습니다. 어학연수를 간 10명 수준이 모두 같지 않고 개인차가 있었지만 처음 일본어를 접하시는 분이 열심히 수업에 임하셨고,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수업의 레벨이 저에게 딱 맞았고 덕분에 일본어가 확실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0802 첫 수업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총 두 분으로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수업 스타일이 약간 달랐지만 그 다른 스타일이 오히려 일주일 내내 수업이 지루하지 않게 되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오카다 선생님은 질문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여 회화의 실력이 늘도록 도와주셨고 이토 선생님은 많은 자료들을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수업에 흥미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단기어학연수에서 정말 좋았던 점들 중 한 가지는 태국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업은 따로따로 들었지만 일본 문화수업과 문화 체험여행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15명 모든 태국친구들이 늘 에너지가 넘쳐 활발하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항상 즐겁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태국에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이라서 프로그램 중에 대화가 필요할 때 일본어가 막히면 영어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영어를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덕분에 일본어, 영어 회화가 둘 다 늘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우리가 3주 프로그램인데 비해 태국친구들은 2주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무척이나 아쉬웠고 프로그램 후에는 페이스북 등으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잇고 있습니다.



0803 타이친구들과 함께



0816 수업 후, 튜터 아이미 마지막날

이번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이신 야마시타상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챙겨주시고 항상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등 늘 신경 써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이 든 후에는 야마시타 이모라고 불러 드렸더

니 더 즐거워하셨습니다. 콘도상은 또 다른 코디네이터로 문화여행 등 프로그램에
 늘 참여하셔서 얼마나 프로그램에 신경쓰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튜터들의 도움이 큼니다. 오사카대
 학원으로 유학중이신 배정은 언니와 오사카대학 한국어과 학생들 덕분에 프로그램
 중 야마시타상와 콘도상과 대화가 필요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함께 얘기하
 고 즐거워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튜터 덕분에 우리
 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잘 들을 수 있었고, 한국어를 잘 하는 일본인 튜터 덕분
 에 일본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일본인의 입장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과
 학생들은 제 또래여서 더 친해지고 나중에 집도 찾아가서 일본음식과 사케도 같이
 먹는 등 이들 덕분에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0804 Osaka Central Wholesale Market

문화체험프로그램은 한 주에 1~2회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4일에 처음 문화여행으
 로 갔던 오사카 최대 규모 도매시장은 매우 흥미로운 곳은 아니었지만 일본 과일의
 가격 와사비의 생김새 등 몰랐던 점을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6일에 갔던 교토로의
 여행은 일정이 빡빡했고 날씨가 더워 힘들었지만 가장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아
 라시야마, 금각사, 청수사, 기온의 순서였습니다. 기온코너에서 일본 연극, 인형극,
 전통춤 등의 공연을 보고 직접 다도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0806 금각사 앞에서



0806 기온코너 다도체험



0811 일본전통가옥에서
목화실뿔기 체험



0811 Business Information
Center

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일에 마지막으로 간 여행인 나라는 옛 수도였기 때문에 절들이 많았는데 이 날도 일정이 빡빡해서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헤이조쿄, 야쿠시지, 도다이지, 하세데라의 순서였습니다. 야쿠시지 절에서 서예체험을 했던 것과 도다이지의 사슴공원에서 사슴먹이를 들고 있으면 사슴이 몰려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0809 라쿠고 관람



0811 타코야키만들기



0811 전통철주조공장 견학

일본 어디든지 모든 일본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했고, 배려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과 같은 관광지의 보존과 관광지 앞에 기념품점들, 캐릭터상품의 활성화 등이 잘 되어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본 고유의 전통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수공예품들과 기념품들을 보며 우리나라 전통의 디자인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 또 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0819 야쿠시지 서예체험



0819 나라 도다이지 사슴공원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일본 오사카대
파견기간 : 2010.08.01~2010.08.21
학 부(과) : 기계정보공학부
성 명 : 조영은
학 년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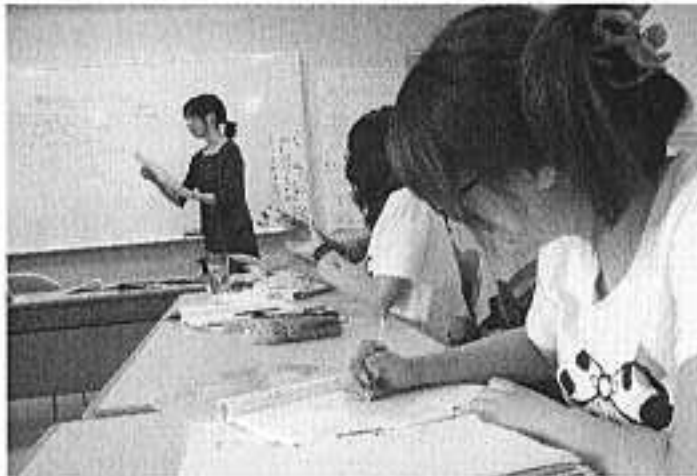
나에게 있어 일본은 어린 시절 동경의 나라다. 학창시절을 일본드라마, 연예인 등에 푹 빠져 보냈기 때문에 이번 일본방문은 내게 값진 의미가 있다. 그렇게 큰 기대와 벅찬 가슴을 앓고 8월 1일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간사이공항에 도착 후 우리를 픽업하실 분이 마중나와 계셔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우리 대학 측과 오사카대학 측과 뭔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3시간 내내 공항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jica, 픽업에서 시간이 길어진 탓에 쉴 틈 없이 바로 방에 짐만 둔 채 환영식에 참석했다. 앞으로 3주 동안 함께 지낼 교수님, 선생님, 튜터들 소개와 2주 동안 같이 수업을 듣게 될 muic학생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간단한 일본어로 이야기꽃을 피웠고, 친절하고 상냥한 튜터들과 교수님을 뵈고 나니 앞으로의 3주가 어떻게 펼쳐질까하는 행복한 상상에 가슴이 설레었다.



8월 2일. 오사카대학 스이타 캠퍼스 ic홀에서 첫 수업을 들었다. 이곳 대학은 크기도 컸지만 녹지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캠퍼스 내에 울창한 대나무 숲도 있고, 큰 연못도 있고, 공원도 곳곳에 있었다. 등하교 길에 학교안의 장관에 대해 친구들과 감탄도 하고 때때론 너무 큰 규모 탓에 길을 잃는 적도 있었다. 당황했지만 주위에 있는 오사카대학 학생들에게 길을 물었고 그럴때마다 학생들은 친절히 길을 알려주었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었다. 수업은 매일 평균 4시간 반씩 kut학생들끼리 들었고, 선생님은 오카다 센세와 이토 센세 두 분이서 진행하셨다. 두 분이

서로 수업방식이 달랐는데, 오카다 센세는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시는 편이셨고 이토 센세는 수업에 재미를 추구하시는 스타일이셨다. 구체적으로 오카다 센세 수업방식은 본문을 CD를 듣고 따라 읽고 옆 사람과 문법 포인트를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말해보도록 유도하셨고, 이토 센세는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해서 주로 동물들의 코믹하고 귀여운 동영상을 보여주시며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해주셨다. 개인적으로 오카다 센세 수업이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 두 선생님 덕분에 3주 동안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우리 학생들의 일본어 수준차이가 몇 명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진행에는 별 다른 무리는 없었다. 또 일주일에 한번 씩 일본문화수업이 있었는데 이때는 muic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이 수업을 통해 그날의 주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정의,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답사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 없이 막연히 그냥 보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수업 내용을 되새기며 이야기 속 내용을 연관시켜 문화재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수업의 질과 일정코스는 굉장히 훌륭했고 짜임새 있었다. 특히 일본어 수업은 처음에 히라가나 밖에 모르던 친구가 이제는 자신의 가족,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나도 일본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만큼 일본어 실력이 부쩍 늘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에 비하면 대단히 큰 효과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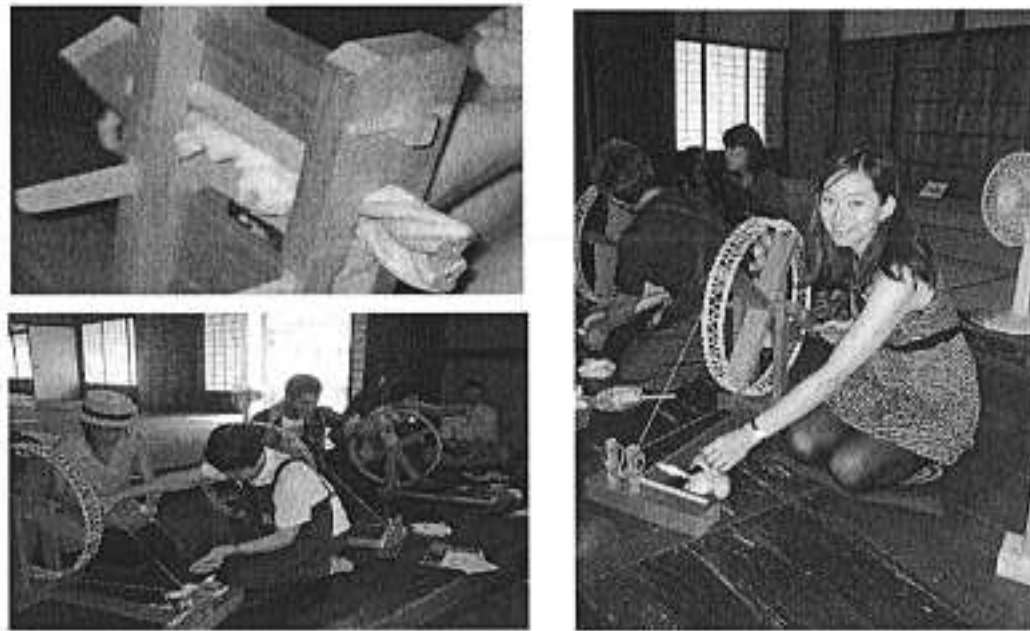
muic학생들과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친해졌다. 20살 안팎의 어린나이여서 인지도 밝고 순수했고 그들을 통해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 허물없이 그들과 친구처럼 막역하게 지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고 내성적인 내 성격 탓에 말을 먼저 걸기가 어려웠었는데, 고맙게도 태국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다. study trip을 통해서 jica에서 오가며 만날 때 마다 우리는 인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진 데에는 한류가 크게 한 몫을 했다. 태국친구들은 한국의 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BoA, 2pm, shinee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한번은 태국친구들이 저녁식사에 초대해서 태국요리를 직접 만들어 주었다. 동남쪽이라는 면 요리와 고기와 야채가 들어가 스프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직접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감동

을 받았다.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몇일뒤, 전에 받은 호의에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이번에는 우리가 태국친구들을 초대해 한국라면을 대접했다. 한국인 입맛에 맞게 조미되어 다소 맵고 짭을 텐데도 맛있게 잘 먹어 줘서 기뻐다. 태국친구들은 2주 동안 같이 공부하고 우리보다 일주일 먼저 떠났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우리는 헤어졌다. 먼저 다가와서 웃으며 말을 건네고 호의를 베풀어준 태국친구들이 정말 고맙고, 그들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은 내 기억 속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일주일애 한 두 번씩 수업의 일환으로 study trip이 있었다. 교토, 나라, 중앙과일 시장, 기업체 견학 등등이 그것인데, 여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다. 오사카 중앙 도매 시장을 견학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것, 공장을 방문하고 전통방식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일본의 재래식 공장을 이해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외국 학생들이 일본을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주제가 되는 것들인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재래식 공장 견학은 기계과인 나로서는 익숙히 보았던 것들이어서 과정이 한눈에 보였지만, 이 분야 전공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선 남루하고 조그만 공장견학이 의아하고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쾌적하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본의 유명 기업의 견학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또 교토와 나라 방문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정해진 일정을 따라 움직이려다 보니 항상 시간에 쫓겼고, 타들어가는 날씨 탓에 쉽게 지쳤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제일 아쉬운 것은 문화재를 충분히 감상할 틈도 없이 다시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 했다는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의 문화탐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시간은 부족했지만 문화 체험은 훌륭했다. 태어나 처음 내 손으로 목화씨를 전통방식으로 걸러도 보고, 목화에서 실을 뽑

아도 보고, 그 실을 이용해 천을 짜보기도 하였다. 마음같이 실이 뽑히지를 않고 계속 엉키기고 꼬이기만 해 애를 많이 먹었지만 재밌고 값진 시간이었다. 평생에 한번 해보지 못할 체험을 이번 연수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오사카 외에 교토와 나라를 답사하며 느낀 느낌이라면 '소박하다'였다. 거리는 한적했고 신사나 절은 고결하였다. 일본인 특유의 정결하고 청아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은 신사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신을 섬기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있다. 곳곳에 신사나 절이 있고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신께 절을 올리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다. 내가 둘러본 모든 신사와 절들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었다. 길은 깨끗했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쉽게 한 코스로 만들어졌고 곳곳에 기념품가게와 자판기, 벤치 등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이곳에 모였다는 점이다. 확실히 동양의 대표국가답게 전세계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일본의 문화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전파된 것인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으로 관광객이 모이고 또 그 것을 일본만의 고유한 문화로 인식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숙소 이야기를 해볼까. 숙소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정말 맘에 들었다. 방에는 부족할 것이 없었고 아침밥은 뷔페식이어서 개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먹으면 되었다. 숙소 내에는 여러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어떤 날은 가라오케에서 실컷 노래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당구를 치면서 음료수 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전거를 빌려서 근교에 나가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작은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묵은 숙소는 국제협력개발기구로서 외국인 수용 비율이 높았는데, 때문에 외국인들과 마주칠 기회가 많았다. 숙소에 도착한 첫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외국인이 hello~?! 말을 건네는데 무척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 생각난다. 그때는 그저 하하 웃고 넘겼는데, 이게 하나의 문화였던 것 같다. 엘리베이터라는 닫힌 공간에서 서로의 출신지를 묻고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잠

간의 시간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즐겼다. 프론트의 직원들은 수준급의 영어 실력에 상당히 친절하셨다. 매일 나갔다 방에 들어올 때마다 청소가 되어있었고 1인 1실이었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있었다. 힘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다음날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안락한 숙소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본어학연수를 통해 나는 분명 한 단계 성장했다. 비단 일본의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방식에서도 느낀바가 많다. 바로 옆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철칙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수고도 마다 않는 친절함까지.. 배울 점이 많다. 생각해보면 방에는 잠잘 시간 빼고는 머물지 않았을 만큼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냈다. 연수에 지원했을 당시 목표인 '직접 부딪히자'를 실천하기 위해 참 많이도 걸었고 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다. 덕분에 이제는 오사카 내의 어느 한 곳에 딱 떨어져도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잘 찾아 갈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이번 일본 연수는 나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다른 환경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성을 했다. 이번 연수가 올해가 되어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 비록 3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3년 30년이 되도록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파견기간 :
학 부(과) : 컴퓨터공학부
성 명 : 이선아
학 년 : 4

8월1일 오전 8시 반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나는 집이 포항이어서 전 날 미리 천 안에 사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 버스로 김포공항으로 갔다. 12시 반 jal 비행기를 탔다. 기내식은 맛이 없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우리의 비행기편과 시간이 바뀐걸 알려주지 않아, 우리를 데려온 사람과 다른 게이트에서 서로 기다렸다.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다. 하마터면 국제 미아가 될 뻔했다. 한 시간 반을 픽업버스를 타고 달려서 JICA에 도착했다. JICA는 간사이 국제공항과 반대 끝 쪽에 있었는데 점점 시골과 산골로 들어가기에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JICA는 요양소 같은 분위기였다. 산위에 건물이 우뚝 서 있는건 아니지만, 굉장한 정원이 있고, 나무가 많고 풀이 많았다. 그리고 나는 도마뱀도 봤다. JICA 건물은 굉장히 깔끔하고 컸다.

들어가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방에서 짐을 풀고서는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갔다. 이미 함께 프로그램을 할 태국 학생들과, 자원봉사 통역학생들 등등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환영인사를 듣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자원봉사 학생들과도 인사를 했다. 한국어과 학생들이었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기에 깜짝 놀랐다.

다음날 아침, 아침밥은 양식으로 나오는데, 빵, 잼, 우유, 달걀, 밥 등 양에 제한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으로 해 놓았다. 나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었지만, 아침밥을 위해서 꼬박꼬박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야마시타선생님과 함께 JICA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IC홀까지 함께 등교를 했다. 무척이나 더웠다. 아침밥을 먹자마자 운동하는 기분이었다. 숙소에서 IC홀까지 대략 25분이 걸린다. 숙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긴 하는데, 아침 등교시간에는 안된다고 해서 3주내내 아침 운동으로 나는 수업 전에 이미 탈진 상태였었다.

태국 학생들과 30분을 걸어 IC홀 주변의 강당에서 학생증과 간략한 주의사항, 학교 내의 여러 공간의 사용방법, 자기소개를 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수업을 들었던 그 캠퍼스는 법학, 의학 캠퍼스라 식당의 음식 가격이 좀.. 많이 비쌌다. 완성된 밥 한 끼에 450-550엔 사이였었는데, 다른 캠퍼스에 가보니까 젤싼 밥 한 끼가 180엔이고 밥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다. 그리고 캠퍼스가 너무 넓은

데다가, 날이 좀처럼 시원해진 적이 없어 학교 캠퍼스를 둘러보지 못했다. 그 점은 굉장히 아쉽다. 처음 그 캠퍼스의 지도를 봤을 때는 서울대를 보는 기분이었는데, 그런 크기의 캠퍼스가 3개나 있다는 걸 알고선 깜짝 놀랐다. 서울대보다도 세계적인 랭킹이 높은 대학은 이렇구나 싶었다.

프로그램은 태국 학생들과 함께 했지만, 수업은 따로 들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서로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히라가나를 알고, 일본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접하고 뭐 아주 알게 알고 있던 터라, 인사도 아주 간략히 했는데 태국 아이들은 자기소개도 길게 하길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었다.

수업은 아침 8시 50분부터 시작이었다. 1교시가 1시간 20분이다. 선생님들이 한국어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셔서, 일본어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셨다. 기억하기 쉽도록 그림카드로 설명을 하시거나, 질문과 대답을 유도하여 그 문장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연습시키셨다. 그리고 과제에는 꼭 에세이를 포함시켜 그 날 배운 문법을 사용하여 글을 쓰고 다음날 발표를 했다. 첫날에는 자기소개를 배웠다.

수요일에는 숙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한 시간을 넘게 달려 오사카의 유명한 농수산물시장을 갔다. 가이드에게서 간략한 설명을 듣고 견학을 나섰다. 농산물시장도, 수산물시장도 모두 한국에서 맘먹고 견학하러 간다면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특히나 바닷가지역에 사는 나에게 수산물 시장은 그냥 그랬다. 오사카의 여름에 아직은 적응하지 못한 터라 그날의 더위는 너무 힘들었었다. 일정은 점심을 먹고 끝이 났다. 오후에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우메다와 남바를 돌아보았다.

금요일에는 아마 패키지여행일 교토로 견학을 갔다. JICA에서 한 시간 남짓을 버스로 달렸다. 아라시아마역으로 가기 전에 로맨틱 트레인을 탔다. 기차 창문에 유리가 없어서 쉽게 밖을 내다 볼 수 있었는데, 승무원이 도깨비 탈을 쓰고 칸마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다. 선로가 강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시원하고 재밌었다. 아라시아마역에 도착해 유명한 대나무 숲을 지나 관광품샵이 많은 거리에서 점심을 때웠다. 그 곳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유명하하기에 태국애들이랑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 콘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엔이었다... 그리고 금각사를 갔다. 금각사는 입구에서 표를 끊고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야마시타상에게 설마 저걸로 끝이냐고 물었더니 저게 끝이라고 했다.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큰 연못이 나오고 그 연못의 끝에 금각사가 있다. 수면에 비친 모습이 왜 금각사가 유명한지 잘 말해주었다. 출구까지는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낮은 언덕 같은 산을 오르다 보면 다시 출구가 나왔다. 금각사도 내부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겉만 훑어보고 나왔다. 교토에서 파는 음식 중에 삼각형으로 접은 떡이 있는데 흑색으로 된 게 제일 맛있었다.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상품인 듯. 다음 장소로는 청수사를 갔다. 청수

사는 높은 산 위에 있다. 청수사에서는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 문화가 잘 전달 된 느낌이었다. 그 날은 정말 화창하고 무더웠는데, 교토는 오사카보다 더 더웠다. 저녁은 도시락으로 먹고 기온 코너에서 전통연극을 보고 다도를 배웠다.

주말에는 오사카 주유 패스를 이용하여 오사카를 둘러봤다. 유적지와 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여름에는 크루즈 운행도 갖고 계절의 구매를 받지 않아서 둘러볼게 많기 때문에 유적지나 박물관 외의 것들을 둘러볼걸 후회를 했다. 하지만 주유패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대부분이 박물관이나 유적지라서, 처음 일본을 방문 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 제대로 둘러본다고 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다.

지하철이나, 번화가를 다니면서 느꼈는데, 일본인이라고 다 얌전하고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건 아니었다. 내 친구도 일본인도 예절이나 법규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한국이랑 별반 다를 거 없다고 했지만, 나는 한국에 와서 다시 느꼈다. 일본인은 남에게 피해를 잘 주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와 시내버스를 탔는데, 20분 동안 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네다섯 번을 걸려왔지만 그 사람은 벨소리가 울리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도로 위에서도 먼저 가려는 차들 때문에 파란 불이 켜진 쪽의 도로가 막혀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은 물가가 조금 비싼 것과 음식이 짠 것, 한국보다 더운 것만 빼면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토요일은 오사카에서 큰 축제가 열렸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불꽃축제였다.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원래 열리기로 한 장소에서 두세 개 떨어진 역에 내려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았다. 길 한쪽으로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데 그 처음과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길었다. 야키소바와 타코야키를 먹었는데, 야키소바는 찐다. 금붕어를 건지는 가게가 있었는데, 늘 만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걸 실제로 보게 돼서 너무 신기했다.

월요일은 오후 수업시간에 라쿠고라는 퍼포먼스를 관람했다. 한 남자가 기모노?를 입고 부채를 들고 앉아서 입담을 풀어내는 퍼포먼스였는데, 쉬운 일어와 영어를 써서 너무 재밌게 웃었다.

2주차부터는 갑자기 수업내용이 어려워졌다. 본문의 길어도 훨씬 길어졌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어의 양도 방대하게 늘어났다. 책에서 다루는 문법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충 물을 주셨는데도, 한국어로 설명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 내가 한국에서 샀던 문법책을 가져가서 딱히 어려움은 없었다.

수요일에는 오사카 시내를 여행했다. 옛날 가옥을 방문했다. 거기서 솜과 씨를 제거

하는 체험과, 킵받침대를 만드는 체험을 했다. 모기가 자꾸 물고 너무 더워서 힘이 들었다. 킵받침대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나는 젓가락 받침대를 만들고 끝내버렸다. 그리고, 일본의 한 공장을 견학했다. 그 공장에서는 철사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만들거나, 철사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공장이었다. 거기서 간단한 체험을 하고 끝냈다.

금요일은 태국 학생들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도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3분 스피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 참고도 할겸 발표를 보러갔다. 2시에 시작했는데, 모두 PPT를 준비해 와서 날 놀라게 했다. 3분 스피치면 말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저런것도 준비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나도 일어가 많이 부족해서 그 아이들의 발표 내용을 모두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시각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PPT를 준비해야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다 잘해서 니시구치선생님이 우리를 돌아보더니 한국 학생들은 이것보다 더 잘하겠지.. 라며 은근한 기대를 보이셔서 더욱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는 나라에 관한 워크샵을 했다. 간단하게 퀴즈를 풀고, 지도를 익혔다. 금요일에 있을 3분 스피치의 주제에 관해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화요일, 수요일은 오후 수업이 없어서 이제 쇼핑을 하러 다녔다. 막상 사려고 하니 별로 살게 없었다. 그리고 밤에는 피피티 작업도 하고, 스피치의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써내려갔다. 연습장 한쪽을 채우니 3분이 좀 넘었다.

목요일에는 나라 여행을 갔다. 요즘 나라의 도읍지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 행사의 마스코트가 참 무섭게 생겼는데, 그 무섭게 생긴 모습 덕분에 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나라는 일본사람들도 잘 안가는 시골이라고 했다. 그날 4군데를 돌았는데 정말 교토나 그 외의 지역보다 많이 노후된 건물이 많았었다. 나라여행 역시 패키지여행이었는데 이날은 정말 걸만 밟고 지나갔다. 야쿠시지절에 가서 서예 체험을 했는데 40분~1시간 사이라고 했던 체험이 한 시간 반을 지체하는 바람에 입장권을 끊어놓고 다른 곳은 구경하지 못하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아쉬웠다.

금요일 아침에 선생님 두 분이서 발표 원고를 고쳐주셨는데, 2시에 발표라 고친 부분을 부랴부랴 외웠지만, 다 외우지 못했다. 난 주말에 간사이 쓰루 패스를 이용하여 교토를 돌아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했다. 그냥 하루 여행을 간략하게 쓴 거라 내용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딱딱하게 끝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발표를 잘 못하고 나서서 하는 편이 아니라서 긴장해서 내용을

까먹을 때엔 원고를 참고하기도 했다.

발표가 끝나고 페어웰을 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그리고 헤어졌다.

3주가 쏜살같이 끝이 났다. 내가 내린 결론은 패키지여행으로 단체로 가는 것보다는 수업을 듣는 편이 훨씬 나았었다는 거다.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려면 히라가나, 가타가나는 외워야 하고, 초급 문법은 공부를 좀 하고 간다면 어렵지 않게 3주를 보낼 수 있다. 단순한 여행으로 일본을 가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만난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3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나에게는 좀 짧았던 것 같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물어보고 봤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듯하다. 일본어향상과 함께 회화도 늘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고 싶다. 기간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일본 오사카대
파견기간 : 2010.8.1~2010.8.21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손승미
학 년 : 2

2010년 8월 1일 오후 5시경 우리들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숙소 JICA에 도착했다. 6시부터 우리들과 태국 MUIC 학생들을 위한 환영식이 있었기에, 방에 짐만 내려놓고 쉴 틈도 없이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향했다. 몇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스무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외국인을 보는 건 생전 처음이었다. 우리들이 도착하자마자 환영식은 바로 시작됐다. 담당 선생님과 튜터들을 소개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한 후 다같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서서 먹어야 해서 불편하긴 했지만, 튜터 중 한 명인 아베 상과 얘기를 나눌 수 있



<JICA 숙소>



<JICA 숙소 개인 욕실>

어서 좋았다. 간단한 환영식이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왔다. 급히 내려가느라 제대로 보지 못한 방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책상, 침대, TV, 에어컨, 개인욕실 등 기대 이상의

숙소였기에 행복했다. 같이 어학연수 온 언니와 밖에 안 나가고 숙소에만 있어도 되겠다고 진담반 농담반 얘기할 정도였다.

그 다음 날 오전 9시, 오사카 대학 내 건물에서 3주 일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처음으로 오사카 대학 땅을 밟아본 날이었다. 숙소에서 대학교까지는 안 멀지만 대학교가 워낙 넓기 때문에 대학 내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건물까지 가는 것이 꽤 멀었다. 평소에 걷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날씨가 워낙 덥고 습해서 건물에 도착하면 땀이 비오듯 흘렸다. 오리엔테이션은 한 강의실 안에서 KUT 학생들과 MUIC 학생들이 함께 들었다. 일정에 필요한 자료와 학교 내 지도를 나눠주고

설명을 해 준 다음, 각자 자기소개를 했다. 각자의 간단한 프로필이 있는 프린트물도 받았는데, 우리 뿐만이 아니라 태국 친구들과 외국인 튜터들 프로필까지 다 있어서 유용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강의실을 옮겨서 일본어 선생님들 소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실 선생님들이었다. KUT 담당 선생님은 이토 선생님과 오카다 선생님이었다. 일본 문화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은 중국인 선생님인 탕 선생님이었다. 이 날은 아직 일본에 온지 둘째 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낯설고 모두와 어색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말 걸어서 모두와



하루라도 더 재밌게 놀 걸 이라는 후회가 든다. 소개가 끝나고 각자 알아서 점심을 해결한 다음, 1시부터 본격적인 일본어 수업이 시작됐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일본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영어와 일본어가 혼합된 수업이었다. 수업 첫 날이었기에 히라가나를 읽고 그림카드를 보는 등 기본적인 내용이라 수업 따라가는데 힘들지 않았다. 오후 4시 정도에 수업이 끝나고 JICA로 바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대학교 내 숲>

데 길을 잃어서 물어 물어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다. 어찌나 미로 같은지 나같은 타고난 길치에겐 절망적이었다. 대학교 내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도 있고 연못도 있어서 더 미로 같았다. 날씨는 덥고 습한데 구두까지 신고 갔기에 JICA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녹초상태였다. JICA에서 제공하는 저녁을 먹고 방에 올라가 씻고 바로 잠들어버렸다. 그렇게 나의 일본에서의 이틀이 지나가 버렸다.

일본에 온지 삼일째부터는 일정에 있는 그대로 일본어 수업이 진행됐다. 오전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30분 수업을 했다. 10분 휴식시간 후에 다시 1시간 반



<도매시장 내에서 태국친구들과 함께>



<도매시장에서 본 와사비>

수업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일본 문화 수업이 있었다. 일본어 수업은 각 대학교끼리

따로 들었지만 일본 문화 수업은 KUT와 MUIC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다. 워낙 활발한 친구들이라 함께 듣는 수업은 더욱 즐거웠다. 일본 문화 수업은 보통 그 다

음날 현장학습이 있을 때 전날 우리가 갈 곳에 대한 지역 소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본 문화 수업은 더 기대가 되었다. 8월 4일, 가장 처음 현장학습을 떠나 본 곳은 오사카 중심 도매시장이었다. 오사카 내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이라 들었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실망했다. 한국 도매 시장과 다를 바도 없었고 그저 걷고 걸어서 지나치며 구경하는 게 다였다. 도매 시장이라 들었지만 크기만 클 뿐, 구경할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도매시장 관계자 분이 배 같은 과일 하나씩과 복숭아 음료도 모두에가 나눠 주시고 번역기도 빌려주시는 등 세심한 배려에는 감사했다. 도매시장을 다 둘러본 후 다함께 식당으로 가서 점심으로 우동을



<태국 친구들과 함께>

먹었다. 그 때는 태국 친구들과 섞어 앉아서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을 다 먹은 후, 수업이 계속 있는 MUIC 학생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는 남아서 일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다. 한신백화점, 한큐 백화점을 구경하고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사람이 정말 많고 덥고 물가가 비쌌다. 하지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다.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번화가를 구경하는 것이었기에 더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백화점이었다. 한큐 백화점, 한신 백화점을 구경했는데 신기한 점이 많았다. 일본에서는 어떤 백화점에 가도 1층에 대부분 케이크와 빵을 판다는 점이다. 각종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는데, 일본이 제빵의 나라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화점 구경이 끝난 후, 남바 쪽으로 가서 쇼핑을 했다. 남바에 가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평일



<일본 라면집에서 먹은 김치라면>

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북적대서 걷기 불편할 정도였다. 그래도 일본의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신기해하며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곳저곳 들어갔다. 큰 쇼핑물도 들어가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일본 라면집에서 라면도 먹었다. 일본 라면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지만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역시 한국인에게서는 신라면이 최고라며 같이 앉은 언니와 실컷 떠들었다. 점심을 먹고 나오니, 늦은 점심이었는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돌아가는 시간도 꽤 걸리게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덜컹덜컹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 길에는 지쳐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저녁 먹고 방에 올라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수업만 있었다. 전날 무리한 덕에 모두 졸린 눈으로 간신히

히 수업을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튿날 교토로 현장학습을 떠날 예정이었기에 난 또 들떴다. 이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다. 일본어 수업을 듣고 현장학습을 가고 매일 숙제가 있었다. 소감문 분량이 정해져있어서 더 자세히 있었던 일을 적지 못하지만, 틀은 항상 똑같았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현장학습이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 하나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어떤 곳은 30분만 있다가 시간에 쫓겨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무리한 일정 대신 하루에 한 곳만 가더라도 그 곳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했던 장소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면 더 유익한 현장학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사카 대학 내 구경이 아쉬웠다. 우린 오사카 대학이라는 일본 명문대학으로 어학연수를 간 것인데도, 대학 내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웠다. 현장학습에 오사카 대학 구경이라든지, 학생들과의 만남 혹은 연구실이나 경영학부 구경이 있었다면 일본 대학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분명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나의 첫 단기 어학연수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처음 외국 대학을 들어가 봤으며, 처음으로 많은 외국인들과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세상은 참 넓다는 것을 깨달았고 난 아직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무역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기에 이번 경험은 더욱더 값진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 말에는 교환학생으로 신청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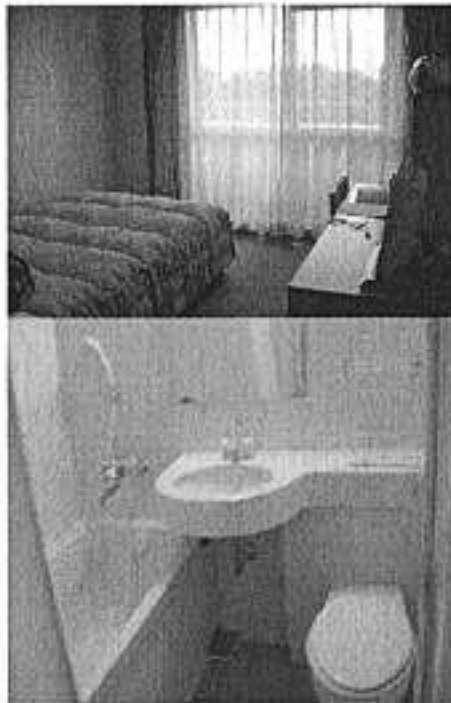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일본 오사카대
파견기간 : 2010.08.01~2010.08.21
학 부(과) : 인터넷미디어공학부
성 명 : 이이슬
학 년 : 4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뜨기 약 7시간 전, 침대에서 일어나 비몽사몽으로 옷을 챙겨 입고, 천안역으로 향하는 전철,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을 타고 8시 반 즈음 드디어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도 아직 내가 해외로 떠나는 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어딘가를 놀러간다는 느낌이 강했기에 딱히 두근거림은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점점 일본에 가까워짐에도 역시나 별 다른 느낌이 없었다. 하지만 간사이공항에 도착해서 한글이 아닌 다른 히라가나 또는 가타가나가 보이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때 내가 일본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야마시타상을 만나러 한 걸음 한 걸음 만남의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수화물을 찾고 드디어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은 KUT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들고 환하게 야마시타상이 우리를 맞이하는 장면이 아닌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뿐이었다. 우리와 만나기로 한 야마시타상이 안 계신다는 사실에 당황한 우리는 그냥 약간 늦는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분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KUT라는 팻말을 들고 계신 분은 안 오시고, 그렇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10명의 한국인은 국제 미아가 되어버렸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던 우리는 한국에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통화 종료 후 들은 말은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를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소리였다. 공항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던 나와 선아는 인포메이션센터에 가서 오사카주유패스와 간사이쓰루패스 2일치를 끊고 돌아와 야마시타상을 기다렸다. 또 다시 시간이 흐른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문제는 우리는 일본어를 제대로 못했고, 영어로 통화하기도 힘들었다. 그렇게 10분간 통화를 했던 중저 멀리서 KUT 팻말을 들고 오시던 한분을 보게 되었다. 그 때 그 반가움이란, 드디어 우리는 국제 미아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일본 땅을 밟고 처음으로 겪은 일은 국제 미아가 될 뻔했던 일이다.

문제가 풀린 뒤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JICA 숙소, 호텔이 아니라는 말에 그냥 우리 학교 기숙사와 비슷한 숙소겠지 했는데 이게 웬 걸, 호텔이라고 해도 손색이



<사진 1> JICA 숙소

없는 숙소였다. 1인 1실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과, 욕조까지 딸려 있던 화장실, 그리고 TV는 물론이고 DVD플레이어에 금고까지, 정말 나에게는 호텔 급의 숙소였다. 숙소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는 학교에서는 만날 비밀번호만 누르고 들어가는 게 습관화 되었었는데 이곳에서는 열쇠로 열고 잠그러니 그 점은 조금 불편했다. 게다가 문을 닫으면 바로 잠겨버렸기 때문에 열쇠를 방에 두고 문을 잠근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었다. 하지만 이 점도 몇 주간 계속되니 완전히 익숙해졌었다. JICA에서의 생활은 정말 완벽하다 할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딱 한번,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버린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할리 치킨 코코넛 카레가 그것이다.

그 날은 저녁을 늦게 먹으러 갔는데 주변 분들이 오늘 저녁은 정말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가 싶기도 했지만 진짜 그 음식은 끔찍했다. 결국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카레가 묻지 않은 흰 밥 부분뿐이라 그 부분과 반찬들만 골라 먹었다. 그 날 저녁은 배가 고파서 일찍 잤던 기억이 있다. 그 때 그 저녁만 제외한다면 무난하게 넘어갔다. 단, 오사카 음식이 전체적으로 짭다는 것만 빼고는

오사카대학교 IC홀에서 이뤄졌던 일본어수업은 나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작년 소감문을 봤을 때는 실력이 다들 천차만별이라 그 수준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일본어 실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수준에 딱 맞는 수업이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수업시간마다 써오는 에세이가 있었는데, 이 에세이는 쓸 때는 힘들었지만 내가 했던 일을 일본어로 쓰다 보니 공부가 된다는 것이 느껴졌다. 게다가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고쳐주시고, 그 에세이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일본어를 눈으로만이 아닌 말로써도 익힐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 내내 옆에 앉은 사람과 그날 배운 내용을 회화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회화를 배우기에는 좋은 방식이었다. 내용 역시 형식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주말에 개별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 문화 수업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기도 했다. 딱 한번 튜터 분들께서 수업에 참관하여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시기도 했었지만 그 이외에는 그저 우리들끼리 내용을 짐작하며 문화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나눠주시는 자료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인 나는 그 자료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였는지 자료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이번 3주 단기 어학연수 기간 중 가장 말이 많을 법한 Study Trip은 아마도 WholeSaleMarket과 공장견학이 아닐까 싶다. 나는 처음에 시장을 간다고 해서 우리

나라 재래시장과 같은 일본의 재래시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채소와 과일의 가격을 경매 같은 방식으로 정하는 도매상과 비슷한 곳이었다. 시장 안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통역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워낙 잡음이 섞이고 어쩔 때는 소리가 들리고 어쩔 때는 소리가 안 들려서 결국에는 통역을 안 듣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다.



<사진 2> WholeSaleMarket

다른 Study Trip인 공장 견학과 Monozukuri Business Information Center Osaka 였다. 이 두 견학은 우리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추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곳에 와있나 라는 생각뿐이었다. 공장견학은 두 팀으로 나뉘서 견학을 했었다. 나는 와이어를 만드는 공장 견학을 갔다. 그저 와이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위층에서 간단한 와이어로 간단한 높은음자리표를 만들어보기도 했지만, 그저 그 뿐이었다. Study Trip 중 다른 한 곳은 제품제조업의 성격을 지닌 센터로 그곳에서는 신기한 것이 많구나 라는 생각 뿐, 그 곳은 학생보다는 중소기업의 간부나 대기업의 간부들이 더 어울리지 않았나 싶다. 물론 변죽이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봄으로써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 학우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두 곳이 왜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곳에서 나름 나만의 의미를 찾았다면 일본의 골목을 둘러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한 가지 위안거리였다.

Study Trip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35도 이상의 날씨에 너무 많은 곳을 빠르게 그리고 잦은 이동을 하며 둘러봤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 것은 딱히 없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건축물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느낌이 강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여행 하루 전에 문화 수업시간에 여행 갈 곳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지닐 수 있어서 좋았지만, 문제는 나 혼자 해석한 것이 맞는 내용인가라는 점이었다. 물론 Study Trip이 처음부터 고단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 열도가 달궈지면 달궈질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또한 패키지여행 같은 느낌은 역시나 지을 수가 없었다. 많은 곳을 둘러보기보다는 좀 적더라도 자세히 둘러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만 든다.



<사진 3> 문화 공연

우여곡절이 많던 Study Trip 중에서 최고를 꼽으라면 나는 교토에서 볼 수 있었던 문화공연을 꼽겠다. 위의 사진은 순서대로 차도, 거문고 연주, 꽃꽂이, 하얀 얼굴로 분 한 뒤 추는 무용 요게이, 궁중 음악연주, 일본 전통 코미디 연극 코켄, 인형극 분라쿠이다. 차도나 거문고 연주, 꽃꽂이, 궁중음악연주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기에 딱히 새로운 점은 없었지만 나머지 4가지 공연, 이것이야말로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본 고유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라쿠이다. 이 인형극은 두 명 또는 세 명이 한 팀이 되서 어떤 사람은 손을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맡아 연극을 하는 것이었다. 다만 높은 음의 일본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는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다. 그저 미리 읽어본 내용 때문에 그 상황을 유추하며 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 말을 알아들었다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했다. 이 날의 마지막은 우리가 직접 만든 차로 마무리를 지었다.

차도는 상당히 어려웠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저냥 따라 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외우라고 했으면 아마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을 것이다. 찻잔을 돌리는 횡수라든가, 도구들을 몇 시 방향으로 두는 지라든가, 차안을 닦아내는 방법 등등, 나에게도 복잡한 과정이었다. 고등학생 때인가 그 때 한국의 차도를 경험해보기는 했지만 그 때는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걸 보기만 했기에 딱히 머리에 남지는 않았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녹색 빛의 차. 그냥 봤을 때는 녹차 라테와 같은 맛이겠거니 하고 먹어봤지만 실제의 그 맛은 상당히 썼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차를 먹어보지 못해서 내가 잘못 탄 건지, 아니면 원래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를 먹기 전에 먹으라던 설탕도 있던 걸로 봐서는 자체가 조금은 쓰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을 했다.

뭐든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앞서 말한 차는 물론이고 효진이 언니와 함께 만든 타코야키이다. 물론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 날 만든 타코야키를 생각하면 생강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생강은 노란빛이 나지만 일본 생강은 주황색이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당근인줄로만 알았던 우리는 재료를 많이 넣자는 심산으로 당근 빛을 지닌 생강을 잔뜩 넣었다. 결과는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생강이 다량 첨가된 타코야키는 한 입 먹는 게 용할 정도로 고달팠다. 그래도 생강이 조금 들어간 타코야키는 생각보다 맛있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어서 두 번 째 타코야키는 만들지 못했지만 주황색 생강과 직접 만들었던 타코야키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진 4> 유카타 입은 커플과 함께

지난 3주를 다시 돌이켜 보니 정말 다사다난했다. 유카타 입은 커플과 사진 찍고 싶어서 내 기에서 진 나와 승미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서툰 일본어로 말해 사진 찍은 일, 숙소에 돌아갈 때 약간 늦게 도착해서 어스름한 뒷문으로 방에 들어갔던 일, JICA 주변 골목이 궁금해서 영은이 언니, 선아, 지선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썬 마트를 발견한 일, 교토에 있는 기온 거리를 가고 싶었지만 길을 잃어서 이리저리 헤

맷지만 결국 제대로 찾아간 일, 일본어 수업시간 에세이에 대부분 MYCAL에 놀러갔다는 이야기뿐이라 선생님들께서 놀라셨던 일 등. 내 머릿속에 남은 이야기를 꺼내 이야기 한다면 6쪽은 기본으로 넘어갈 것이다.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나 역시 그런 생각을 지니고 결국 고생은 훗날 추억이 된다고 믿고 있다. 지난 3주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이모였던 야마시타상, 태국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노는 것을 보며 신기한 듯 쳐다보셨던 콘도 교수님, 마지막 날 내가 썼던 동물원 에세이가 정말 웃겼다며 배를 잡고 웃으셨던 오카다 선생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셨던 이토선생님, Study Trip 때 유적지에 대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셨던 탕 선생님, 그리고 튜터였던 배정은 언니, 아베상, 유키상, 정보군 등 우리를 도와줬던 분들 때문에 일본에서의 3주는 힘든 기억보다는 즐거웠던 기억이 더 많이 남는다. 힘든 기억과 즐거운 기억이 더해졌기에 지난 3주간의 생활은 값진 기억이 되었다. 그 기억을 추억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그 추억 위에 새로운 기억이 쌓이고 그렇게 많은 경험과 기억이 쌓여 과거의 일을 추억하는 또 다른 내가 되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3주간의 일본 이야기는 언제고 내 머릿속 한편에 오래 동안 남아있을 것이고 언제고 추억할 것이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일본 오사카

파견기간 : 2010.08.01~2010.08.21

학 부(과) : 산업경영

성 명 : 박태준

학 년 : 4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오사카대학교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여름에 다녀온 어학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주간 다녀오면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겠어, 그냥 적당히 하고 오자.’는 생각이 너무 커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다. 하지만 막상 갔다와 보니 처음의 저의 생각은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게 될 정도로 무척 유익하고 즐거운 3주였습니다.

처음 제가 어학연수 명단에 들어갔을 때 10년전인 고1때 배운 히라가나가 전부여서 무척 고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0명중 남자는 저 혼자였고, 영어실력도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녀온 친구가 튜터들이 한국말을 정말 잘하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는 것과, 일본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저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였습니다. 저는 일본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로 그러한 걱정은 썩 사라졌습니다. JICA숙소에 들어서자 야마시타 이모(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했음)와 튜터들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튜터들은 정말 한국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종보라는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물론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내년에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다고 하였고 때마침 저도 서울에 살기 때문에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날 저녁에 간단한 파티를 즐기고 월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고1때 배운 히라가나도 가물가물 한 상태라 과연 내가 이수업에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옛기억을 더듬거리며 히라가나로 되어있는 글자를 더듬거리며 읽는 수준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발음 연습,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과 자기소개, 가족소개등 교재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본어 사전도 준비하지 못해서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니였습니다. 같이온 다른 학생들은 일본어 실력이 어느정도 있는 학생들이인지라 수업이 무난하다고 하는데 저는 도통 모르는 말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지나갈 무렵 조금씩 단어를 알아듣고 수업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만 싶었는데 차츰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과제로 수필을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써 점점 일

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짤막한 영어와 일본어로 간사이 지방의 곳곳을 돌아다녔으며, 마지막 날 종보네 집에가서 음주를 즐겼습니다.

특히 오카타 선생님은 저에게 CITY BOY 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고, 이토선생님은 저희가 처음에 오사카 시내의 지리를 모를 때 너무나도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교재의 수업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언어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는 와카리마셴(모르겠습니다.)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일본교재로 공부할 때 다른부분은 몰라도 문법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말로 약간의 보충설명이 있었다면 더욱 수월하게 공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어를 어느정도 알고있던 다른 학생들은 불편함이 없었겠지만 숙소에서의 인터넷도 느려서 인터넷 사전으로 하나하



나 다 검색하기란 쉽지 않았고 한국말을 어느정도 구사하는 튜터들을 매일같이 붙잡고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생각해보면 고생이 있기에 이정도라도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러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던 곳 말고도 일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진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제팬이라는 일본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의 입구에서 나오면서 밤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기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조차도 이곳 이미지에 맞게 꾸며놓은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바로 오른쪽 사진이 지하철인데 정말 재미있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넓었고 어트랙션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3D와 4D를 넘나들고 각종 놀이기구마다 스토리가 존재하였으며 스케일 자체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놀이동산이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곳은 스파이더맨이라는 곳인데 역시나 이곳은 인기가 제일 많아 저는 universal express 4 티켓을 3400엔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역시 일본은 물가가 너무 비쌌습니다. 물 한병에도 100엔 우리나라돈으로 1400원...

그러나 그곳은 값이 비싼 만큼 질이 좋았습니다. 입장권을 6100엔을 주고 구입하고 universal express 4 티켓을 3400엔 주고 구입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게다가 섬나라여서 그런지 너무 습했습니다. 제얼굴이 까만 얼굴은 아니었는데 이곳에서 검게 타가지고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말고도 저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오사카 주유패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처음으로 와서 관광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오사카 주유패스는 하루동안 승인된 지하철 몇가지를 마음대로 탈 수 있었고 오사카 지역의 여러 명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 주유패스로 저는 주말에 오사카 역사 박물관을 먼저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기모노를 입었는데 정말 한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복보다는 간편하지만 너무 무겁고 겨울에는 입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입어봤는데 너무 안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역시 한국사람인가 봅니다. ㅋ 이곳에서는 일본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나와 저는 오사카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오사카 성은 생각보다 너무 거대하고 웅장하며 성벽을 둘러싼 물줄기는 정말 멋진 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안에는 생각보다 화려하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사카성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처럼 웅장하게 조선의 옛성을 유지하고 지켜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역사보전에 있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사카성을 어느정도 구경한 뒤 나는 항만지역을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산타마리아라는 배를 탔는데 날씨와 경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배는 30분정도 운행하였는데 정말 너무 전경이 멋있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점은 날씨가 너무 더웠고 뜨거운 햇살에 얼굴이 탈까봐 걱정되었고, 사진찍을 때 눈을 제대로 뜰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일본의 멋진 배경을 배를 타고 즐겨보니 한강의 유람선이 조금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밖에도 난바와 도톤보리, 우메다는 일본의 열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무라는 일본 젊은사람들의 패션을 느낄 수 있었고, 난바는 일본에서 유명한 라면과 타코야끼등 맛있는 맛집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념품과 선물

목적으로 과자와 옷등을 구입하였고 특히 여기서 먹은 푸딩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어느 라면집에서 우연히 한국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친절히 라면에 대해 알려주었고 타지에서 한국사람을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라면은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일본음식들이 다 짜서 먹기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웬지 모르게



이곳 음식이 아주 잘 맛있습니다. 다만 너무 비싸고 양도 너무 적게 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랐던 것 같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녀보면 뚱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없었습니다. 역시 일본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은 이러한 小食하는 나라풍습이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오사카 프로그램으로 갈수 없었던 고베를 갔다왔습니다. 고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럽풍 건물이었습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서양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히 흑인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만 봐도 일본은 유럽을 동경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근데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일본사람들은 생각보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 상점의 점원등은 간단한 영어회화 조차 알아듣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무 현저히 떨어진 실력이라 튜터들에게 물어보니 일본사람들은 영어를 우리나라처럼 완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에서도 취직시 많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영어가 강력한 취업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영어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나로써는 지상낙원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스빈다.



오사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공장견학과 나라에서 먹은 스시는 정말 최악이었지만 전통공연관람이나 전통차체험은 좋았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사슴도 구경하고 직접 먹이도 주었으며, 사슴과 함께 공존하는 일본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한 고베에서 사찰을 돌아다니며 부적도 받고 일본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는다는 것에 우리나라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나라의 마스코트인 사슴을 아래사진과 같이 사람화 시켜서 마스코트화 했는데 정말이지 누가 봐도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사람들과 튜터들 뿐만 아니라 태국학생들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집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다닐정도면 뭐...ㅋ

하지만 정말 부러웠던 것은 그 아이들의 밝고 순수하며 활발하고 착한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웃었으며 친절하고 순수했습니다. 또한 모든일에 적극적이었으며 항상 밝고 활발했으며 진정 삶을 즐길줄 아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나이에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였기에 취업을 앞둔 저에게는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과 우리는 인연을 끊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메일주소를 교환하였습니다. 나는 이들 때문에 가장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예의가 바른 나라, 친절이 몸에 배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다 친절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으며 지하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제가 일본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잘 정돈되고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일본이 왜 선진국인지를 잘 알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3주간의 어학연수는 단지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 27살인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삶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내가 계획하고 목표로 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올수 있도록 해주신 프로그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한기대 학생들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일본 오사카대학교
파견기간 : 2010.08.01~2010.08.21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양효진
학 년 :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오사카대학교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3주간 참여한 산업경영학부 07학번 양효진입니다. 평소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었고 일본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자 일본 오사카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단기어학연수에 참여했던 학우님들의 경우 저를 제외하고 전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셨던 반면 저는 이번 단기어학연수에서 일본어를 처음으로 공부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완벽하게 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기 중과 계절학기 기간 동안 학업과 개인적인 사정들로 바쁘게 지냈다는 핑계로 기초적인 일본어 공부조차 하지 못한 채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고 수업 시간이 되자 역시나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암기하고 오지 않은 저의 실수가 대단히 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가지고 갔던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가나 암기 카드와 교재를 번갈아 가며 보느라 수업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였습니다. 교재를 읽는 속도도 암기 카드를 보며 읽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느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일본어 수업을 들었던 학우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읽는 것은 많이 서툴렀지만 거의 매일 작문을 해야 하는 에세이 과제를 하면서 다행히 일본어로 문장을 쓰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그래도 첫째 주 보다는 일본어에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듬더듬 수업시간에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교재 내용의 난이도 역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히라가나와 가타가나에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간지와 문법까지 배우고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과제까지 수행해야 해서 조금은 버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오사카 시내에 구경

을 다녀오는 날이면 가뜰이나 피곤한데 과제를 해야 될 생각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피곤함이 배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과제를 하면서 일본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에세이를 쓰고 다음 날 수업 시간에 한명씩 돌아가면서 에세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야하는 지 공부를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귀국 전 날인 금요일 수업 시간에 final presentation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셋째 주에 접어들어서부터는 final presentation 준비를 주로 했습니다. 원고를 쓰면 선생님들께서 교정을 해주시고 발표 전에는 파워포인트 자료와 함께 발음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발표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던 학우님들과 제 사이에 수준 차이가 심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생님과 학우님들에게 3주 동안 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우님들이 그래도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잘 모르는 저에게 친절하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어서 일본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는 평가와 상대적으로 하는 평가 모두에서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일본어 실력은 당연히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실력 정도 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같이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학우님들은 전에 일본어 공부를 한 경험이 있었고 저는 전무했기 때문에 기본지식이 전혀 없어 학습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이 다른 학우님들에 비하여 확실히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기준을 저 하나로만 두고 본다면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 일본어는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한 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일본을 떠날 무렵에는 일본어 단어나 문장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고 서툴고 느리지만 더듬더듬 말도 조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거두었기에 스스로는 일본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에 점원이 뭐라고 물어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영어로 되묻고는 했었지만 셋째 주에는 점원이 먹고 갈 것이냐고 물어보는 말이 들렸다는 것 자체가 어학 능력이 향상된 것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inal presentation이 끝난 후 선생님들과 함께 한 farewell party에서 선생님께서도 제 일본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며 칭찬해주셔서 더 뿌듯했습니다.



학교에서 갔던 study trip은 도매시장과 공장 견학(?)을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조금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갔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갔을 때 놓칠 수

있거나 경험하지 못할 뻔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던 점은 좋았습니다. 오사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타코야끼를 만들었던 것도 재밌는 추억 중의 하나로 남았습니다. study trip을 갈 때 마다 tutor가 함께 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와 빠르고



어려운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했을 때 통역을 해 주어서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study trip 뿐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tutor 집에 방문도 하고 재밌고 신나게 지냈습니다. orientation과 study trip, 평소 수업, party에서 오사카 대학교의 야마시타상께서 계속 찍어주시고 오기 전에 사진첩을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마시타상과 선생님께서 우리가 낫토를 안 먹어봤다는 말을 기억해서 farewell party 때에는 낫토 까지 준비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 하나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낫선 외국인이 아니라 늘 옆에 있던 이모 같아서 야마시타상을 야마시타 이모라고 부르면서 farewell party에서 다음에는 온천에 함께 가자고 웃으며 얘기했지만 그 동안 정이 들어서인지 아쉬운 마음에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사카 대학교에는 태국 MUIC의 학생들이 2주 코스로 단기 어학연수를 와서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하고 study trip 역시 함께 가면서 다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태국 학생들이 쾌활하고 워낙 밝은 성격이라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2주 동안 친하게 지냈습니다. study trip을 갈 때에도 태국 학생들 덕분에 장거리를 지루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69계임을 가르쳐주고 같이 하기도 했고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했습니다. 일본어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태국 친구들 덕분에 외국인만 보면 입이 벌어져 버리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친구들이 영어를 꽤 능숙하게 잘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어려



움이 없어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1주일 먼저 떠나서 태국 친구들이 없는 일주일일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로 외국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고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태국 친구들과 지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몇 친구는 한국어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했던 자이카는 깨끗하고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식사 역시 거의 대부분은 입맛에 잘 맞아 지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식당에 밖에 없어 식당이 닫은 시간 이후로는 목이 마르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어야 했던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편함 정도는 보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이카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JR역까지 운행하는 셔틀 버스가 있어서 교통비가 비싼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셔틀 버스 막차 시간이 앞당겨져 주말에 여행을 다닐 때에는 셔틀 버스를 못 타는 날이면 모노레일을 탔는데 오사카대학교 병원역이 그나마 가까워서 주말에도 자이카까지 돌아가는 교통편에 대한 걱정을 덜었습니다.

자이카에서 오사카대학까지는 오사카대학 캠퍼스가 넓어서인지 걸어서 25~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야 시간에 맞춰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여름에 일본이 무척 더웠다고 하는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수업을 받은 날에는 자이카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서 한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헤매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캠퍼스 내 길과 학교 주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까지 알게 돼 생활하는 데 오히려 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난 방과 후와 주말에는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 저기 여



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너무 학업에만 열매이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까지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터라 이번 단기어학연수 기간 동안에도 가만히 있으면 엉덩이가 들썩거리어서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간사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매했던 오

사카 주유페스를 사용해 하루 온종일 바쁘게

여행을 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study trip으로 교토와 나라는 가지만 고베를 가지 않아서 고베도 다녀왔고 단기어학연수를 떠나기 전부터 기대하던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시내에도 자주 나가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전철 노선도와 명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만 있으면 가지 못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 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주변 행인분들께 물어보거나 역에 근무하시는 분께 물어보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행사에서 가는 단체 관광처럼 수동적으로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알

아보고 그 곳까지 찾아가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발하게 열심히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치게 될 수많은 일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시련을 겪을 수도 있지만 부지런히 살면 적어도 제가 한 일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고 지난날에 대한 미련이 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기회는 최대한 노력해서 잡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다 나은 내가 되게끔 한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고 일본에서 일본어학 능력 향상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한국과 일본의 모든 관계자 분들과 튜터, 함께 참여했던 학우님들, 태국의 친구들, 일본에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가족들에게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일본 오사카대
파견기간 : 2010.08.01~2010.08.21
학 부(과) : 건축공학부
성 명 : 유지선
학 년 : 1

오사카대 어학연수가 결정된 후 여권, 여행자 보험 등의 준비를 하고 나의 일본어 실력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한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일본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7월 한달간 나름 공부를 했지만 결국 히라가나와 기본적인 인사만 익힌 채로 일본으로 출발했다. 일본에 도착 한 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게 된 태국학생들과 프로그램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환영회를 했다. 일본의 관계자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일본어를 전혀 몰라도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다. 둘째날은 수업이 시작되는 날로 숙소에서 학교건물 까지 KUT 담당 코디네이터였던 야마시타상이 안내해주셨다. 약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무더운 오사카 날씨 속에서 그 거리를 매일 이동하느라 매우 힘들었다. 아침에는 수업도 전에 지치는 날이 많았었다. 이 점이 이번 어학연수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어 수업은 월,화요일은 오카다 선생님 수,목, 금요일은 이토 선생님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두 분의 수업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첫 수업은 오카다 선생님과 함께였는데 히라가나, 카타카나부터 찬찬히 가르쳐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나같이 일본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 맞춰진듯한 수업이었다. 첫 주의 수요일에는 오사카 중앙 시장에 견학을 갔었는데 오사카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이었다. 오사카는 항구도시라서 전국 각지에서 해산물, 과일, 야채 등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각종 식재료들이 모두 모여있는 것 같았다. 도매시장이라서 경매가 열리는 것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교토의 아라시야마, 킨카쿠지, 키요미즈테라, 기온거리에 갔었다. 여행 전에 탕 선생님의 문화수업을 통해 우리가 갈 곳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가서 너무 좋았다. 수업 때 배운 내용들과 사진을 통해 본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두 배로 공부가 되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기온에서 일본 전통 공연을 약 한 시간 정도 관람했는데 전부 일본어라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TV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되어 너무 신기했고 공연 후에는 다도체험도 할 수 있었다. 교토 여행은 통해 하루 동안 일본의 전통을 잔뜩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또 함께 여행 하면서 KUT와 태국 학생들 모두 조금씩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었다.



첫 주의 주말에는 우연히 일정이 겹쳐서 일본의 여름 축제인 하나비 축제에 갔었다. 요도가와 강에서 불꽃놀이도 보고 타코야끼, 야끼소바 등을 먹었다. 그리고 축제라서 그런지 유카타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일본에 와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실감하게 되었었다. 둘째 주의 첫날인 월요일에는 학교에서 일본의 전통 개그인 라쿠고를 보았다. 한 사람이 무대에 앉아 말로 하는 개그인데 일본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영어로 공연을 해주셨다. 라쿠고 라는 이름도 참 생소하고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1시간동안의 공연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재미있었다. 또 적극적인 태국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체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수요일에는 오사카의 전통공장과 벤처기업들의 상품을 모아놓은 전시관에 갔었는데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만한 장소도 아니었고 별 의미가 없었던 견학 이었던 것 같다. 금요일에는 태국의 학생들이 2주간의 어학연수를 마치는 날이어서 오사카 대학 병원 레스토랑에서 송별회가 열렸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다른 학교 학생들, 게다가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함께 라고 해서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었는데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친해지고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밝고 즐거운 친구들이어서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었고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어학공부에도 서로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 2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생각보다 많이 친해져서 마지막이라는게 많이 아쉬웠다.



셋째 주에는 어학연수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있을 Final Presentation 준비로 일본어 공부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다. 발표 준비 중간에는 나라견학을 위한 수업을 하고 목요일에 나라에 갔었다.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슴들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불상도 보았다. 또 못생겨서 유명하다는 캐릭터 센토군도 잔뜩 보았다. 그날 마지막 일정으로 399단의 계단이 있는 하세데라에 갔었는데 힘들게 계단을 오른 뒤 절에서 보는 경치가 아주 멋있었다. 여행 다음 날 TV에서 하세데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다. 마지막날의 Final Presentation은 우리가 직접 원고를 써서 PPT와 함께 3분정도 스피치를 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를 쓰면서 그때까지 배웠던 수업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공부도 참 많이 되었었다. 그리고 히라가나밖에 몰랐던 내가 3분간이나 일본어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참 놀라고 감탄했었다. 나의 일본어 실력이 이렇게 향상된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정말 더운 날씨속에서 항상 맨 앞에 서서 우리를 안내해주시던 야마시타상과 콘도상 그리고 매일 즐거운 수업시간을 만들어주셨던 오카다 선생님과 이토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느꼈었다. 그리고 3주 동안 한국어가 가능한 튜터분들이 항상 곁에 계셔서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었고 여행을 통해서 알수 없었던 일본의 다양한 문화들을 배울 수 있어 참 좋았다. 우리가 생활했던 숙소인 JICA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소라서 직원분들이 모두 영어가 가능해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없었고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셔서 숙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일본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 또한 일인실에 매일 청소도 해주

서서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한가지 불편했던 것은 저녁으로 나왔던 음식들이 한국 학생들의 입맛에 너무 안 맞았던 것이다. 메뉴를 고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만 빼면 참 유익하고 즐거웠던 3주였고 혹시 오사카대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정말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파견기간 :

학 부(과) : 정보기술공학부(정보통신)

성 명 : 이정민

학 년 : 1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본과 일본어에 대해 참여자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정말 만족하고, 참여해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장점 혹은 다음에는 고쳐주었으면 하는 점, 그리고 일본에서 보고 느꼈던 것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본어에 대한 수업이 주를 이룹니다. 히라가나와 카타가나를 읽고 쓸 줄 아는 상태에, おはよう나 こんにちは같은 기본적인 인사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참여자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자신 혹은 가족 소개나 하루 일상, 주말에 하는 일, 좋아하는 것 등을 소개하는 본문을 공부하며 그것을 스스로의 경우에 적용하여 다음 시간에 발표 할 짧은 에세이를 쓰는 것이 주된 수업방식입니다. 후반에는 동사를 활용하여 ~하고 싶다,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문법위주의 수업을 하였고, 가장 마지막에는 자신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평가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교재는 일본어로만-설명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한국어를 구사할 줄 모릅니다). 한글이 없어서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모국어 설명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 본래 의도는 순수 일본어로만 학습을 시키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 일본어로만 배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까지 와서 일본어를 배우는데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어학원에 등록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진심에 대해 모국어와 타국어의 차이에 대한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의미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담긴 마음과, ‘あいしてる’라고 말할 때에 담긴 마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국어를 사용할 때의 ‘사랑합니다’에는 정말 사랑이 여과 없이 담겨있는

반면, 타국어를 사용할 때에는 사랑한다는 감정의 모국어를 타국어로 고치면서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모국어의 힘은 상당히 막강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모국어가 있으면 효율이 높지만, 이렇게 배운 타국어는 그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얘기할 때, 외국어 능력시험을 칠 때나 쓰이는 언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설명방식을 조금 개선해서라도 다른 언어를 쓰지 않고 일본어를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점을 좀 바꿔서, 수업시간 내용은 정말 초급수준입니다(참고로 다음 해는 난이도를 올려서 중급레벨 일본어학연수가 된다고 합니다). 수업시간 내용보다 수업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과자나 사러 편의점에 갔을 때 점원이 하는 말이 더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 실제 일본인들이 말하는 속도가 교재의 리스닝 CD 속도보다 상당히 빨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영어듣기문제집과 CNN 앵커 사이의 수준으로 갭이 큼니다. 일본어 배운답시고 일본에 온 건 좋았는데 뭔가 학습 이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숙소인 JICA의 직원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함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언어도 조금씩 구사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말을 잘 못해도 친절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을 내년의 오사카대학 프로그램 참여자분들 안심하시길) 이걸 감히 어학연수에 참여한 거라 해도 되나 생각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첫날에는 CNN 뉴스처럼 들리던 비행기 안의 승무원들의 일본어 안내멘트가 돌아가는 날엔 놀라울 정도로 잘 들려 오더군요. TV를 틀어도 일본말, 길을 가다 보이는 간판도 일본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일본어이니 그저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언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 쓰여진 간판(하필이면 사망사고 다발 경고)만 아니었으면 한국의 외딴곳에 있는 마을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풍경. 그리고 아침에 TV를 틀었다가 반가워서 찍은 포켓몬스터 화면입니다. 피카츄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수업 외 활동으로 오사카 시장이나 교토, 나라, 일본의 회사 견학에 가기도 했습니다.

오사카는 옛날부터 먹다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한데(대표적인 일본 음식인 타코야키나 오코노미야키는 오사카에서 탄생) 오사카 시장은 과일,

채소, 생선 등의 식품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팔려나가는 식재료 거래의 중심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날의 스케줄은 오사카의 변화가인 우메다 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먹고 끝나서 메인인 ‘오사카 시내 표류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쓰는데, 정말로 일본을 알고 싶다면 일본의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시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일본 관광여행, 이런 걸 신청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정보를 모으고 일본어를 배워서 배낭여행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교토로 갔을 때 관광지 아라시야마나 킨가쿠지, 기요미즈데라로 갔을 때 ‘여기가 일본이 맞나’로 느꼈는데, 왜냐면 첫 번째로 일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점원이 불친절하고, 두 번째로 일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설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일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국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단체 여행은 가이드가 붙어서 일본어를 전혀 못해도 상관없고, 숙식문제도 없고, 고생할 걱정이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여행이 아니라 맞춰진 계획에 의한 것이기에 보고 느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업이 빨리 끝나서 자유시간이 많았던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시간이 많아서 좋았던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보고 싶었던 일본사회를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나 체험활동이 시간낭비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토로 갔을 때 기온에서 봤던 전통극이나, 오사카 체험날 타코야키 만들기, 나라의 토다이지에서 사슴에게 센베 먹이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재미있어했습니다.



▲나라의 사슴들. 올해 추정된 개체수가 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은 곳 바로 옆에 사슴 센베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다들 여기서 대기 하고 있는 듯...

수업 외 활동 중 개인적인 불만을 얘기해도 된다면 나라에 갔을 때 야쿠시지에서 사교-불교의 경전 일부를 필사하는 활동을 통해 마음속의 잡념을 지움-를 했는데, 종이 밑에 필사해야할 내용이 쓰여진 종이를 깔고 베틀 위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아서 붓으로 쓰는 게 딱 초등학교때 미술시간에 하던 서예와 같았습니다. 전 그때 아무리 해봐도 먹이 번질 정도로 물이 많거나 붓이 갈라질 정도로 물이 적거나 해서 서예를 정말로 못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거기다 매년 미술 교과서에 서예가 있어서 매년 베틀나 붓 사는데 돈낭비만 했었던 트라우마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옛날엔 서예가 집중력을 올리는데 좋다고 해서 서예학원도 있었고 그랬지만 세상엔 서예 말

고도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때 7년 만에 붓글씨 쓰면서 온갖 생각을 하다가(그러니 전 잡념을 없애지 못한 셈.) 이걸 꼭 소감문에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쓰고 있는 거랍니다.

주말은 수업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출생이고 19년을 부산에서 살아왔지만, 부산에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하철 자유승차권 사서 마구 돌아다니기’를 오사카에서 해봤습니다. 일본에도 관광객을 위해서 하루 이틀동안 교통수단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여러 종류 있는데, 저는 버스와 지하철, 뉴트램-지지대를 세워 높게 간 레일의 위를 달리는 모노레일과 흡사한 교통수단. 공중에서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음-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일일승차권을 샀습니다. 이걸 자동매표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안내원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 구입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심장이 떨렸답니다.



▲오사카시의 지하철과 JR선(요금은 지하철수준입니다만, 지하철보다 타는 곳이 복잡해서 전광판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봐야합니다), 뉴트램의 노선도입니다. 그나마 원래는 더 복잡해서 한가한 역은 생략해놓은 거랍니다. 전 김포공항에 오면서 서울도 혼자서 처음 와본 거였는데, 오사카 지하철을 타면서 다음에 서울에 온다면 지하철 타기는 정말 누워서 떡먹기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점잖지 못한 점도)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화장 고치는 여자도 있고, 서서 떠드는 젊은이들도 있고, 분리수거를 무시하고 버려진 쓰레기도 있고, 신호등을 무시하는 사람이나 차량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사회보다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JICA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15분이면 근처에 역이 있는 대형 쇼핑몰로 갈 수 있는데(사실 일본어수업은 배운 것을 다같이 복습할 시간을 별로 가지지 않아서 스스로 숙소에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일본어에 능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 속에서 성실하게 복습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쇼핑몰 안에 있는 카트는 바구니가 없습니다. 바퀴가 달린 프레임에 바구니를 올려놓을 수 있는 모양의 구조인데, 옆에 있는 마트용 바구니를 그 위에 올려서 가지고 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구니를 그냥 들고 다녀도 되고, 카트에 올려서 다녀도 되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카트 부피가 작으니 한국의 대형마트에 가면(특히 주말) 늘 볼 수 있는 쇼핑카트 교통체증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구매량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장보기 구매량이 별로 많지 않은 일본의 생활방식에 딱 맞는 아이디어이죠.

그리고 교통에 관련해서 정말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어학연수를 받은 오사카대학교는 스이타 캠퍼스이고, 다른 곳에 도요나카 캠퍼스와 미노우 캠퍼스가 있습니다. 다른 캠퍼스로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탄 적이 있었는데, 버스 안에 마이크와 스피커 시설이 있어서 정차할 때나 출발할 때, 커브길을 지날 때마다 운전기사가 알려줍니다. 탈 때마다 관성의 법칙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우리나라 버스를 떠올리며 굉장히 감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아 있음에도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승객이 미처 요금을 지불하기도 전에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하거나, 굽은 길에서 드리프트를 감행하는 우리나라 버스 기사분들이 조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하셨으면 하네요.

시내로 나갔을 때 한신백화점이나 한큐백화점 같은 유명한 쇼핑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처럼 아래층은 식품을 팔고, 위층에는 화장품이나 명품(여기는 거북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의류 매장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일 눈길 많이 간 곳이 식품매장이었는데, 여기 있는 음식은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예쁘다’보다는 ‘정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게 생겼다’라는 이미지를 주지요. 백화점 음식뿐만이 아니라 지하상가나 ATC(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 센터)의 상점에도, 일본의 물건(일본인들은 작은 걸 좋아하는지 장식품 중에는 엄청나게 작은 아이템이 많습니다. 이걸 사서 어디다 놓아도 눈에 들어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은 눈길을 끄는 것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가격을 보고 그 눈길을 다시 거두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는데, 일본은 원체 물가 비싸기로 소문이 나있지만 실속은 가격만큼 좋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한국에 가면 훨씬 싼데, 이런 음식은 한국에서 먹으면 훨씬 양도 많고 맛있는데, 라며 타국으로 왔을 때 생기는 어떤 환상을 깨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걸 보니 일본에 오래 있었긴 했나 봅니다.

한국에서 막연히 글이나 사진으로만 접했던 일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여기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는 것도 깨닫게 된, 대단한 경험을 겪었습니다.